

스펙타클한 수험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신동철님

합격수기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31기 관세사시험에서 합격한 신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합격수기를 읽으실 텐데 정말 이런 수험생도 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저의 수험생활은 정말 한마디로 스펙타클 하였습니다. 미칠 듯한 외로움에 학교후배와 쌤만 타다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고시생이 걸릴만한 병(치루, 관절염)은 다 걸리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공부의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는 힘들 때마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공부 방향의 큰 도움이 되었던 합격수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다니 상당히 어색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역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비상경계 학생들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수험생활

1.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선 수험생분들에게 상투적인 말씀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1차 공부를 학교수업과 병행하면서 준비하였으며 2차 공부는 유학한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차 공부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 터라 남들보다 뒤쳐진 상태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 라는 생각은 정말 앞길이 막막한 수험생활에서 큰 약점이고 저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2차 시험(동차)에서는 시험지를 보고 뭘 써야할지 몰라 1교시 끝나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날 정말 비참한 마음이 극에 달하였으며 더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잊지 말자. 내년에는 모든 것을 다 쓰고 싶어 하는 너가 되자." 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으며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꾸준히 준비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였으며 1월~6월 동안은 모의고사를 보는 토요일만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24회 2차 모의고사 중 8번 1등을 하였으며 지금 합격을 하였습니다.

2. 1회 모의고사 40등

제가 2차 모의고사를 8번 1등을 하였어도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였어도 막상 2차 모의고사를 보니 막막하였습니다. 결과는 40등, 관세법과 관세평가 HS 과락... 그레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 스스로 위로를 하였지만 소심해진 수험생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저는 답안지 작성 요령을 익혔던 거 같습니다. 모의고사 본 다음날 답안지에 적힌 학원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답을 서술한다면 더 괜찮겠다라는 것을 터득하였습니다.

점점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더니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용원 관세사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며 "아니 어떻게 40등에서 이렇게 성적이 올랐냐,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처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고수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 외로움

저는 수험생활에서 큰 슬럼프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인데 카카오톡을 지우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로

공부한 터라 정말 외로웠습니다. 학교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집-도서관-집만 알았으며 가끔 학교에서 지인들을 만나 밥을 먹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금기로 여겨지는 연애라는 것을 하고자 하였으나 학교후배와 쌤만 타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슬럼프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나에게 지금 관세사가 절박하다면 닥치고 공부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는 벽을 삼아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슬럼프를 극복하였습니다.

4. 질병

그러나 마음가짐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체적 질병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보니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치루와 손목관절염으로 고생하였습니다. 게다가 2차 시험을 보기 몇 달 전인 5월부터 발생하여 수험생활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아 노력의 훈장으로 생각하며 손목운동과 좌욕을 하며 증세를 완화시켰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2시간에 한번씩 일어나 손목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 종교생활

수험생에게 종교생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다녔으며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다녀와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불안한 수험생활에서 종교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6. 커피금지

평소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커피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바로 전날에 친구와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이라는 긴장감과 커피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커피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시험전날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II. 1차

1. 공부기간 2012년 12월 ~ 2013년 4월

1차 공부는 정말 계획 없이 공부한 거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체계적으로 공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국제 무역사와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전반에 대해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공부 초기에 목표가 학교를 병행하여 2013년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유학한 다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는 회계과목이 있어 저 같은 비상경제학생 에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적 시험과는 달리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거 같습니다.

2012년 12월 후반부터 2013년 2월(겨울방학)까지는 정말 회계 위주로 공부한 거 같습니다. 3월 개강하고 나서는 학교 수업시작 전에 1시간 정도 일찍 와 회계 모의고사를 풀었으며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가 1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밤 11시쯤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귀가하여 내국소비세법의 헛갈릴만한 이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 1차 점수

- 관세법 개론 : 85
- 무역영어 : 70
- 내국소비세법 : 82.5
- 회계학 : 72.5

3. 공부방법

1) 관세법 개론

저는 D학원의 오OO 관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전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였는데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법전을 외워야한다는 느낌이 들어 굉장이 거부감도 들고 이걸 무턱대고 외우기도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OO 관세사님의 특 쓰는 말투와 학교 선배님이라는 친근함으로 인해 관세법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였고 관세사님이 체크하시는 중요한 부분부터 차근히 학습하여

다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지 관세법을 모두 쓰면서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식한 공부방법이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3월쯤부터는 오OO 관세사님의 객관식 관세법 수업을 들었으며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보니 관세법 모든 법규를 쓰고 앉았던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관세법 개론은 다독이 진리이며 2차 공부하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내국소비세법

D학원 황OO 관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과목이었지만 황OO 관세사님의 강의를 들으니 정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면서 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내국소비세법은 1차 과목 중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은 굉장히 헛갈리는 이슈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기본을 충실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계학

D학원 이OO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하던 과목이 바로 회계였습니다. 회계를 짧은 기간 내 소화해낸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대번, 차번, 계정, 유동자산 등 회계를 처음 접하는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OO 세무사님의 개념정리와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외웠으며 모의고사반을 들어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문제위주로 풀었습니다.(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1차 시험당시 회계학은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회계 초보자에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과락을 겨우 넘기는 정도였으나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OO 세무사님이 가장 바보 같은 수험생이 원가회계를 포기하는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시험에서 원가회계 문제도 꽤 많이 차지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원가를 포기하는 것은 과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원가회계를 막상 풀어보면 회계학보다 훨씬 쉽고 재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원가회계 포기 하지 마세요!

4) 무역영어

D학원 신OO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1급을 가지고 있어서 무역영어를 공부하기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인코텀즈와 CISG, ISBP 영어 원문을 보며 다독하였습니다.

IV. 2차

1. 공부기간 (2013년 7월 ~ 2014년 7월)

1차 시험이 끝나고 학교생활을 하다가 6월 말 2차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몰라 1교시 끝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굉장히 비참한 마음에 저에 대해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5월 6월에 기본강의를 들었으나 학교공부에 쫓기느라 다 듣지 못하고 진도를 많이 놓쳤습니다.

2차 시험 후 쉬다가 7월부터 본격적인 2차 공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제갈현근 관세사님과 조전희 관세사님이 유명하다고 들어 W학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 공부에 있어 저의 목표는 하루에 4과목 모두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계획표는 다음과 같은데 최대한 이대로 지키도록 노력하였고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시간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평가 공부 18시간에 끝내지 못했다면 귀가 후 보충하였습니다.

2013년 7월 ~ 2014년 7월	
월~토요일	
아침 7시	기상
아침 8시	학교 도서관 등교
아침 8시 ~ 12시	관세법
12시 ~ 13시	점심식사
13시 ~ 15시	HS
15시 ~ 18시	관세평가
18시 ~ 19시	저녁식사
19시 ~ 22시	무역실무
22시 ~ 00시	강의 수강

일요일	
~13시	휴식 및 종교활동(교회)
14시	학교 도서관 등교
14시 ~ 16시	관세법
16시 ~ 18시	HS
18시 ~ 19시	저녁식사
19시 ~ 21시	관세평가
21시 ~ 22시	대외 외국환
22시 ~ 00시	무역실무

2013년 11월부터는 대외 외국환을 짜투리 시간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2014년 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2. 공부방법

저는 모의고사반을 제외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기본반과 심화반 수강시 관세법은 제갈현근 관세사님, HS는 조전희 관세사님, 관세평가는 김OO 관세사님, 무역실무는 최OO 관세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원은 W학원이였으며 작년(2013년) 제갈현근 관세사님과 조전희 관세사님이 FTA관세무역연구원으로 옮기시는 바람에 큰 방향을 꺾었습니다. 11월 쯤 고심 끝에 관세법과 HS 마스터반 강의를 FTA 관세무역연구원에, 무역실무와 관세평가 강의를 W학원에서 수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FTA관세무역연구원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였습니다.

1) 관세법

• 다독 및 목차노트

기본과 심화, 문제풀이, 모의고사 모두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2차 관세법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1차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관세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본강의를 대충 들었던 터라 심화반에 가서는 도저히 강의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1차 강의를 제갈현근 관세사님으로부터 듣지 않아서 2차 교재도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다독! 무조건 많이 읽었습니다. 강의 중에 목차노트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목차노트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관세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차를 적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된 목차 하나라도 더 적음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차 교재를 보면서 저 자신만의 목차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하여 보니 10월쯤에 조그만 수첩 1장이 가득 찼습니다. 관세법 공부를 한 뒤 10분 정도 공부한 부분에 대한 목차노트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큰 그림

관세법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간단하지 정말 어렵습니다. 11월 쯤 막상 다독하고 있으나 용어나 법조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공감하시듯이 책을 덮으면 방금 공부한 내용도 의미해집니다. 그러던 중 계갈현근 관세사님이 강의 중 도화지에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과 통관 등 책에는 서로 다른 장으로 되어 있어도 도화지에 내용을 적어보면 큰 그림이 보인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따라 해보았습니다. 입항-보세구역-통관 절차 등을 하나의 내용으로 보니 감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3장의 납세심사와 5장에서 납세자 권리 중 성실성 추정 받을 권리가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만들었던 도표며 큰 그림이 한 10장 정도 되었던 거 같습니다.

큰 흐름과 함께 다독을 하니 내용이 더욱 더 이해가 되며 공부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부분과 서로 연관되는 점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차별화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의

모의고사 막바지에 이르면 수험생 모두 법조랑 이슈에 관련된 목차와 내용을 다 적습니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의입니다, 의의 부분에 정의나 법의 도입배경, 목적, 취지 등을 적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조를 외우는 것에 집중하나 저는 도입배경, 취지 등을 외우면서 관세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 공부량

관세법은 주로 아침에 공부하였으며 8시 ~ 11시까지 관세법을,, 11시부터 12시까지는 환급특례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하루에 1장, 2장, 3장 등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였으며 다독하여 점점 공부범위를 넓혀 서로 연관된

다고 보는 장들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은 정말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관세법에 비해서 공부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수월하였으며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환급특례법도 관세법과 비교하라는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절대 놓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초기에는 과락을 겨우 넘기는 점수였으나 점점 모의고사를 치다보니 70점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입배경, 취지 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목차를 빠짐없이 써보도록 노력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HS

- 강의

HS는 조전희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마스터, 문제풀이반 및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였습니다. HS는 2차 과목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며 엄청난 암기력이 필요해서 공부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주 규정과 모든 호를 외우고자 하였으며 조전희 관세사님이 중요하다고 집어주신 해설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며 공부하였습니다.

- 암기방법

HS에 어느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주 규정과 호를 외우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를 외우기 위해 각 호마다 대표적인 품목을 정하여 앞자리만 따서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1류를 “말, 소, 돼, 면, 가, 기” 이런식으로 외웠으며, 외운 것을 따라 읽어 녹음하여 녹음한 내용을 다시 자기 전에 들었습니다. 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단어만 따서 암기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꾸준히 하니 1월 쯤 되니 HS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2차 시험보기 전까지 HS에 대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암기방법을 만들어 꾸준히 반복하면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 상품학

상품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출제될까봐 걱정이 되어 시험보기 2주전쯤부터 쪽 읽었습니다. 다행히도 시험에서 상품학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3) 관세평가

- 강의

김00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강의와 김병수 관세사님의 문제풀이,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세평가는 저에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과목이었습니다. 김00 관세사님이 이해가 잘되게 가르쳐주셔서 기본과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관세평가가 재밌고 4과목중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관세평가 정해』 책으로 꾸준히 읽으며 깊이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협정이 걱정되기 하였지만 별로 외울 필요성을 못 느꼈으며 필요한 개념을 정리하여 12월 달에는 A4 25장의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월에 학원을 바꾸면서 김병수 관세사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협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협정 위주로 근거를 드는 답안지가 더 설득력 있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월 달부터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협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며 짧은 기간 내 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거의 과락을 이어갔고, 제 나름의 방식대로 작성한 답안지는 협정을 근거로 하는 모범답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포기 하지말고 외워버리자라는 태도로 기본, 심화강의 때 들었던 내용과 협정의 내용을 비교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본강의와 심화 때 들었던 관세평가 내용이 다 협정에 근거하였던 거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모의고사 점수를 70점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모의고사 답안지에 “상당한 실력자이시군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 협정

김병수 관세사님의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그만한 협정문 정리집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정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책이며 크기도 작아 돌아다니면서 읽기에 적합했습니다.

4) 무역실무

- 강의

최00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강의와 박병호 관세사님의 문제풀이, 모의고사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재는 최00 관세사님의 무역실무1,2로 공부하였습니다.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1급을 가지고 있어서 무역실무 공부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목차노트

저는 12월 달까지 무역실무 1,2를 다독하였으며 제 나름대로 목차 노트식으로 정리집을 만들었습니다. 무역실무도 답안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목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코텀즈와 CISG, UCP는 모든 조항을 외우다시피 공부하였습니다. 3가지는 거의 시험에 100%나옵니다. CISG, UCP는 조항의 번호까지 외웠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 무역실무 전 범위를 1주일 안에 다 볼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방대하여 너무나 힘들었지만 5월, 6월이 되니 5일 만에 무역실무를 한번 정독할 수 있었습니다.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11월쯤부터 공부하였습니다. 최00 관세사님의 교재로 공부하였으며 짜투리 시간(식사 뒤, 집중이 안 되는 경우)을 활용하여 다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기 관세사 신동철 드림.